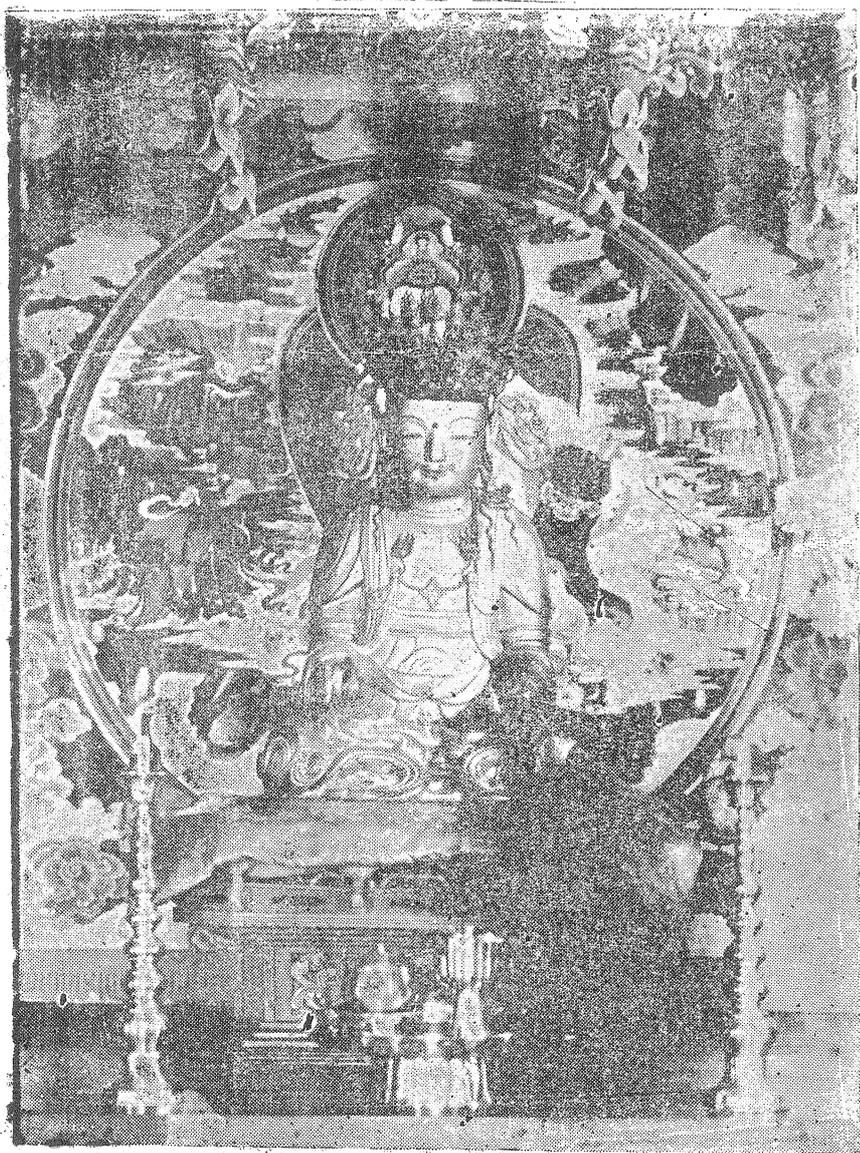


佛紀二千九百八十七年庚子

修行要集

清涼寺藏板



수행요집

차례 (目次)

예경편

(禮敬篇)

..... 一

천수경

(千手經)

..... 六

사대주

(四大呪)

..... 六四

반야심경

(般若心經)

..... 六八

심경해석

(心經解釋)

..... 七〇

보제존자나옹대화상발원문

(普濟尊者懶翁大和尚發願文)

..... 七五

이산혜연선사발원문

(怡山慧然禪師發願文)

..... 七七

법성계해석

(法性偈解釋)

九一

무상계

(無常戒)

九六

무상계해석

(無常戒解釋)

九九

(참선곡)

(一)

禮敬篇

아금청정수 我今清淨水

변위감로다 變爲甘露茶

봉헌삼보전 奉獻三寶前

원수애납수 願垂哀納受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삼계대사 三界大師

사생자부 四生慈父

사바교주 娑婆教主

본 本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사십팔원 四十八願

접인중생 接引衆生

서방교주 西方教主

아 我

등도사 等導師

아미타불 阿彌陀佛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동방만월세계 東方滿月世界

십이상원 十二上願

약사유리 藥師琉璃

광불 光佛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현거도솔 現居兜率

당내용화교주 當來龍華教主

미륵존불 彌勒尊佛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진시방삼세 盡十方三世

제망찰해 帝網剎海

상주일체 常住一切

불타야중 佛陀耶衆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경률론 經律論

삼장십이부 三藏十二部

일체수다라 一切修多羅

원만교해 圓滿敎海

진시방삼세 盡十方三世

제망찰해 帝網剎海

상주일체 常住一切

달마야중 達摩耶衆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오봉성주 五峯聖主

칠불조사 七佛祖師

대지문수 大智文殊

사 師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리보살

利菩薩

여래장자

如來長子

법계원왕

法界願王

대행무궁

大行無窮

보

普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보문시현

普門示現

원력홍심

願力弘深

대자대비

大慈大悲

관

觀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염불삼매

念佛三昧

섭화중생

攝化衆生

대희대사

大喜大捨

대

大

세지보살

勢至菩薩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중생도진

衆生度盡

방증보데

方證菩提

대원본존

大願本尊

지

地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삼처전심

三處傳心

격외선전

格外禪詮

두라제일

頭陀第一

가

迦

장보살

藏菩薩

섭존자

葉尊者

지심대명례

至心歸命禮

결집삼장

結集三藏

유통교해

流通教海

다문제일

多聞第一

아

阿

란존자

難尊者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동토전법

東土傳法

선정초조

禪定初祖

보데달마

菩提達摩

존

尊

자

者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남약이세

南嶽二世

총림법주

叢林法主

백장회해

白丈懷海

조

祖

사師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전지조인 傳持祖印

대흥종풍 大興宗風

근역초조 權域初祖

도 道

의조사 義祖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서천동토 西天東土

오파분류 五派分流

역대전등 歷代傳燈

제 諸

대조사 大祖師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진시방삼세 盡十方三世

제망찰해 帝網刹海

상주일체 常住一切

승가야중 僧伽耶衆

유원 惟願

무진삼보 無盡三寶

대자대비 大慈大悲

수아정례 受我頂禮

명훈가피 冥熏加被

력力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천수경千手經

淨口業眞言 (진언은 세번씩 읽으시오)
(구업을 깨끗이 하는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五方內外安慰諸神眞言 (오방내외의 여러 신을 안위시키는 진언)

나 무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開經偈

無上甚深微妙法 끝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 겁난 조우

백겁천겁 만나기 어려워

아금견문득수지

내이제 보고들어 외우니

원해여래진실의

여래뜻 바로알기 원하노라

개법장진언

(법장을 여는진언)

음 아라남 아라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

손이 천이오, 눈이 천이신
관음보살의 넓고, 원만하
시고

무애대비심대다라니

걸림없는 대자대비 하신
큰 다라니 주문

계청 청하는 뜰

稽首觀音大悲呪

관세음보살대비주에 머리를 숙이옵나니

願力弘深相好勝

원력이 홍심하시고 상호도 좋으시여

千臂莊嚴普護持

일천의 장엄하신손으로 넓히 보호 하시며

千眼光明遍觀照

일천의 밝으신 눈으로 두루살펴 보아주시고

眞實語中宜密語

진실한말씀 그가운데 또 비밀을 배부시며

無爲心內起悲心

하염없는 마음그안에 또자비를 일으키시여

速令滿足諸希求

모든 원과 구함을 속속히 이뤄주시사

永使滅除諸罪業

모든 죄와 업을 영영히 멸케하소서

천룡중성동자호
天龍衆聖同慈護

백천삼매돈훈수
百千三昧頓薰修

수지신시광명당
受持身是光明幢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세척진노원제해
洗滌塵勞願濟海

초증보리방편문
超證菩提方便門

아금칭송서귀의
我今稱誦誓歸楸

소원종심실원만
所願從心悉圓滿

하늘과 모든성중이

함께들 열짜주시사

백천가지 삼매를

한꺼번에 닦아서

받어가진 이몸이

그대로 광명당이요

받어가진 이마음이

그대로 신통장이라

세상고생 씻어바리고

저언덕에 건너가서

정각 방편문을

뛰어나 열게하소서

내가이제 대비주를

외워서 귀의하오니

이마음 먹는대로

모든원 다 이뤄지다

南無大悲觀世音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願我速知一切法

나로 일체법을

급속히 알게하소서

南無大悲觀世音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願我早得智慧眼

나로 지혜눈을

재빨리 얻게하소서

南無大悲觀世音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願我速度一切衆

나로 일체대중을

급속히 제도하게하소서

南無大悲觀世音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願我早得善方便

나로 좋은 방편을

재빨리 얻게하소서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足道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지혜배를

급속히 타게 하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괴롭바다

재빨리 넘게하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계정도들

급속히 얻게하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원적산에

재빨리 가게하소서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원아속회무위사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원아조동법성신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도산자취절

我若向火湯

火湯自枯渴

화탕자고갈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하염없는 겁에

급속히 모이게하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나로 법성신과

재빨리 같게하소서

내가 칼산을

향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내가 화탕을

향하면

화탕이 저절로

말러지고

我若向地獄
아약향지옥

地獄自消滅
지옥자소멸

我若向餓鬼
아약향아귀

餓鬼自飽滿
아귀자포만

我若向修羅
아약향수라

惡心自調伏
악심자조복

我若向畜生
아약향축생

自得大智慧
자득대지혜

내가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녹아 없어지고

내가 아귀를

향하면

아귀가 저절로

배부르고

내가 아수라를

향하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항복되고

내가 축생을

향하면

저절로 큰지혜를

얻어지다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南無千手菩薩摩訶薩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南無大輪菩薩摩訶薩

南無觀自在菩薩摩訶薩

南無正趣菩薩摩訶薩

南無滿月菩薩摩訶薩

여러 보살님과 아미타불을 의
지하여 천수다라니를 성취하라
함

南無水月菩薩摩訶薩

南無軍荼利菩薩摩訶薩

南無十一面菩薩摩訶薩

南無諸大菩薩摩訶薩

南無本師阿彌陀佛

(세번)

神妙章句大陀羅尼

(신기하고 미묘한 큰다라니주문)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약 바로기데

세바라야 모디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
 레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문
 자꼴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가
 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싯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
 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옥다야 사바하 상카섬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라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이사
 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야가라 잘마
 이바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四方讚 사방찬

(사방이 깨끗이 되었음을 찬탄함)

一灑東方潔道場 일쇄동방결도량

첫째 동방에 뿌리니

도량이 깨끗하고

二灑南方得清涼 이쇄남방득청량

둘째 남방에 뿌리니

마음이 시원하고

三灑西方俱淨土 삼쇄서방구정토

셋째 서방에 뿌리니

정토가 이뤄지고

四灑北方永安康 사쇄북방영안강

넷째 북방에 뿌리니

기리 안강하다

道場讚 도량찬

(도량이 깨끗이 되었음을 찬탄함)

道場淨無瑕穢 도량청청무하예

도량이 티도 없이

깨끗하여

삼보 천룡강차지

삼보 천룡께서

아금지송묘진언

이제 묘한 진언을

원사자비밀가호

자비를 배푸시여
도와 주시옵소서

懺悔偈

(죄를 참회하는글)

아석소조제악업

내가 옛적에 지은바

개유무시탐진치

모든 악한 업은
모다 시작없는 탐, 진, 치로

종신구의지소생

몸 입 뜻으로써
생긴바를

일체아금개참회

내 이제 일체를
참회하나이다

懺悔眞言

(죄를 참회하는 진언)

음살바몬다 모디 사다야 사사하 (세번)

准提功德聚

준제주의

공덕무덕이

寂靜心常誦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一切諸大難

모든 큰

어려움이

無能侵是人

이 사람에게

침범치 못해서

天上及人間

하늘이나 사람

누구든

受福如佛等

부받기를

부처와 같으리니

毘此如意珠
우차여의주

이여의주

언어 가지니

定獲無等等
정획무등등

비길수 없는 정을

결정코 얻으리라

南無七俱胝佛母大准提菩薩
나 무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淨法界真言
정법계진언

(법계를 깨끗이하는 진언)

음 람

護身真言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음 치림

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真言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관세음보살의 크고 밝은 근본 진언)

옴 마니 반메훔

准提眞言 (준제보살진언)

나 무 사 다 남 삼 약 삼 못 다 구 치 남 다 나 타 옴

자 레 주 레 준 제 사 바 하 부 립

我今持誦大准提 내가 이제 큰 준제주를

아 금 지 송 대 준 제 가 저 외 우 며

卽發菩提廣大願 곧 광대한 성불할원을

주 발 보 리 광 대 원 발 하 노 니

願我定慧速圓明 나의 정과혜가 속히

원 아 정 혜 속 원 명 밝어 지기 원입니다

願我功德皆成就 나의 공덕 다

원 아 공 덕 개 성 취 이루기 원입니다

願我勝福遍莊嚴 나의 복력 두루

원 아 승 복 변 장 엄 장엄하기 원입니다

願 共衆生成佛道
원 공 중 생 성 불 도

모든 중생과 같이

성불하기 원합니다

如來十大發願文
어 래 십 대 발 원 문

(여래의 열가지 큰원문)

願 我永離三惡道
원 아 영 니 삼 악 도

나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영영 떠나기 원합니다

願 我遮斷貪癡
원 아 측 단 탐 진 치

나는 탐, 진, 치삼독을

속히 끊기가 원합니다

願 我常開佛法僧
원 아 상 문 불 법 승

나는 불, 법, 승삼보를

항상 듣기가 원합니다

願 我勤修戒定慧
원 아 근 수 계 정 혜

나는 계, 정, 혜삼학을

부지런히 닦기가 원합니다

願 我恆修隨佛學
원 아 항 수 제 불 학

나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 원합니다

願 我不退善提心
원 아 불 퇴 선 퇴 심

나는 보리의 마음이

퇴전치 아니하기 원합니다

願我決定生安養
원아결정생안양

나는 결정코 안양국에

願我速見阿彌陀
원아속견아미타

나는 속히 아미타불을

願我分身遍塵刹
원아분신遍塵刹

나는 온갖 세계에 이몸이

願我廣度諸衆生
원아광도제중생

나는 모든 중생 널리

發四弘誓願
발사홍서원

(네가지 큰 원을 발함)

衆生無邊誓願度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갓이 없지만

煩惱無盡誓願斷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끝이 없지만

法門無量誓願學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기어히 배우리라

기어히 견지리라

기어히 끊으리라

佛道無上誓願成
불도무상서원성

自性衆生誓願度
自性衆生誓願度

자성중생서원도

自性煩惱誓願斷
자성번뇌서원단

自性法門誓願學
자성법문서원학

自性佛道誓願成
자성불도서원성

發願已 歸命禮三寶
발원이 귀명례삼보

先誦 終
선송 끝

南無常住十方佛
나무상주시방불

불도가 위가 없지만

기어히 이루어라

내 자성중생을

맹서코 제도하리라.

내 자성번뇌를

맹서코 끊으리라

내 자성법문을

맹서코 배우리라

내 자성불도를

맹서코 이루리라

(원을 발했으니 삼보께 목숨을

바쳐 의지하옵나이다)

시방에 항상계시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나다

南無常住十方
나 무 상 주 시 방 법

南無常住十方僧

나 무 상 주 시 방 승

阿彌陀佛眞金色

아 미 타 불 진 금 색

相好端嚴無等倫

상 호 단 엄 무 등 룬

白毫宛轉五須彌

백 호 완 전 오 수 미

紺目澄漚四大海

감 목 증 청 사 대 해

光中化佛無數億

광 중 화 불 무 수 억

化菩薩衆亦無邊

화 보 살 중 역 무 변

시 방 에 향 상 계 시 는

법 보 에 게 귀 의 하 나 이 다

시 방 에 향 상 계 시 는

승 보 에 게 귀 의 하 나 이 다

아 미 타 부 처 님 의 몸 은

진 금 색 이 시 고

상 호 가 단 정 하 시 고 엄 숙 하 시 어

짝 하 리 가 없 으 며

미 간 에 백 호 광 명 의 두 루 합 이

다 섯 수 미 산 과 같 이 크 며

검 붉 은 눈 의 맑 고 맑 음 이

바 다 와 같 도 다

광 명 가 운 데 셀 수 없 는

화 불 이 계 시 며

화 보 살 도 또 한 갓 이

없 이 계 시 여 서

四十八願度衆生
사십팔원도중생

九品咸令登彼岸
구품함령등피안

以此禮讚佛功德
이차예찬불공덕

莊嚴法界濟有情
장엄법계제유정

臨終悉願往西方
임종실원왕서방

共觀彌陀成佛道
공도미라성불도

極樂世界寶池中
극락세계보지중

九品蓮華如車輪
구품연화여거륜

사십여덟가지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해서

염불하는 중생은 모다

극락세계로 가게하니

이러함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배하여

법계를 장엄하며

모든 유정을 제도하시니

임종시에 모다

극락세계로 가서

한꺼번에 아미타불을 뵈옵고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극락세계

보배 못 가운데

아홉칭으로 연꽃이 피었으니

크기가 수레바퀴와 같고

彌陀 丈六 金 軀 立
미타장육금구립

左 手 當 臂 右 手 垂
좌수당홍우수수

綠 羅 衣 上 紅 袈 裟
녹나의상홍가사

金 面 眉 間 白 玉 毫
금면미간백옥호

左 右 觀 音 大 勢 至
좌우관음대세지

侍 立 莊 嚴 審 諦 觀
시립장엄심제관

歸 命 聖 者 觀 自 在
귀명성자관자재

身 若 金 山 蒼 葡 萄 花
신약금산담복화

그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니

몸은 금빛이오 키는 열여섯자이라

왼편손은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땅으로 내리시고

푸른 깃옷에

홍가사를 수하시었으니

얼굴은 금빛이오 미간에는

백호가 빛나시도다

좌편에는 관음보살이오

우편에는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모시고

장엄하게 서서 계시네

대성 관자재보살에게

귀의하니

몸은 금산에

담복화와 같으시고

귀명성지대세지

신지광명조유연

삼성소유공덕취

수월진사대약공

시방제불함찬탄

진겁불능공소분

시고아금공경례

원아진생무별염

대성 대세지보살에게

귀의하니

몸에서 광명이 나서

인연있는곳마다 비취어 주시도다

아미타 관음 세지 세성인의

공덕의 무덕이가

수는 티끌보다 많고

크기는 허공과 같으니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모다 찬탄하시기를

여러겁을 두고 설하더라도

미치지 못할것이옵기

내가 이제 일심으로

예배하나다

내가 사는 날까지

별다른 생각이 없고

阿彌陀佛獨相隨
아미타불독상주

心心常係玉毫光
심심상계옥호광

念念不離金色相
념념불리금색상

我執念珠法界觀
아집념주법계관

虛空爲繩無不貫
허공위승무불관

平等舍那無何處
평등사나무하처

觀求西方阿彌陀
관구서방아미타

南無西方大教主
나무서방대교주

아미타부처님을

항상 따라서

생각 생각이 부처님의

옥호광에 매어 있고

생각 생각이 부처님의

금색상호를 여의지 아니하고

내가 열주를 잡고

법계를 관하니

허공으로 줄을 맨들어

퀘이지 못함이 없도다

평등한 광명이

아니 비취는곳이 없는데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부처님을 구하나다

無量壽如來佛

무량수여래불

南無阿彌陀佛

(일념으로 불으시오)

극락세계십종장엄

(극락세계에 열가지

큰 장엄)

법장서원수인장엄

법장 비구가 원을 세워

과거인행을 닦아 장엄하며

사십팔원력장엄

사십여덟가지 원을 세워

원력을 성취하여 장엄하며

미타명호수광장엄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는

무량수 광명으로 장엄하며

삼대사관보상장엄

세 대사를 보니

보배 상호로 장엄하며

미타국토안락장엄

아미타불의 국토는

안락한 것으로 장엄하며

보하청정덕수장엄

보배물은 청정해서

팔공덕수로 장엄하며

寶藏如意樓閣莊嚴
보전여의루각장엄

晝夜長遠時分莊嚴

주야장원시분장엄

二十四樂淨土莊嚴

이십사락정토장엄

三十種益功德莊嚴

삼십종익공덕장엄

彌陀因行四十八願

미타인행사십팔원

惡趣無名願

악취무명원

無墮惡道願

무타악도원

同真金色願

동진금색원

여의주로 지은궁전

루각으로 장엄하며

낮과 밤은 오래고 오랜

시간으로 장엄하며

스물네가지 질겨운

정토로 장엄하며

삼십가지 이익한

공덕으로 장엄하다

아미타불이 인행시에

사십여덟가지 원을 세웠다

이국토에는 지옥 아귀 축쟁

세가지의 악도가 없기가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음이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몸빛이 다같이

금색으로 되기가원이오

形貌無差願
형모무차원

成就宿命願
성취숙명원

生獲天眼願
생획천안원

生獲天耳願
생획천이원

普知深行願
보지심행원

神足超越願
신족초월원

淨無我想願
정무아상원

決定正覺願
결정정각원

이국토에 나는이는 모양이

다 같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숙명통을

성취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천안통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천이통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타심통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신족통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아상이

없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정각을

얻기가 원이오

光明普照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광명이
한량없기가 원이오

壽量無窮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수명이
한량없기가 원이오

聲聞無數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성문중이
많기가 원이오

衆生長壽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중생이
장수하기가 원이오

皆獲善名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모다
착한이름 얻기가 원이오

諸佛稱讚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모든부처가
칭찬하기가 원이오

十念往生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아미타불을
열번 불러서 가기가 원이오

臨終現前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임종시에
부처님이 나타나기가 원이오

회향개생원 回向皆生願

구족묘상원 具足妙相願

합계보처원 咸階補處願

신공타방원 屢供他方願

소수만족원 所須滿足願

선입본지원 善入本智願

나라연력원 那羅延力願

장엄무량원 莊嚴無量願

이국토에 나는이는 일엽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서 꼭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삼십이상을

구족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일생보처에

오르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새벽마다

시방 부처님께 공양올리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구하는바 있는대로

만족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부처지혜에

들어가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금강불괴신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장엄이

한량없기가 원이오

寶樹悉知願
보수실지원

獲勝辯才願
획승변재원

大辯無邊願
대변무변원

國淨普照願
국정보조원

無量勝音願
무량승음원

蒙光安樂願
몽광안락원

成就總持願
성취총지원

永離女身願
영이녀신원

이국토에 나는이는 보수를보고

모든것을 알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지혜와

변재를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변재가

한량이 없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지방에 모든부처님을

거울과 같이 보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한량이없는 향음이

지방 세계에 두루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광명을 입어

안락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무생법인울

성취 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영영 녀자의

몸을 여의기가 원이오

開名至果願
문명지과원

天人敬禮願
천인경예원

須衣隨念願
수의수염원

纔生心淨願
자생심정원

樹現佛刹願
수현불찰원

無諸根缺願
무제근결원

現證等持願
현증등지원

開生豪貴願
문생호귀원

이국토에나는이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곧 성불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모든 하늘과 사람이

공경하고 예배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옷을입고 싶으면

의복이 곧 입어지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나면서 곧 마음이

조출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나는이는 보수를 보면 무량불토가

거울과 같이 보이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육근이

구족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청정한

해탈을 얻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넓고 귀한곳에

나기가 원이오

具足善根願
구족선근원

供佛堅固願
공불견고원

欲聞自開願
욕문자문원

菩提無退願
보리무퇴원

現獲忍地願
현획인지원

諸佛菩薩十種大恩
제불보살십종대은

發心普被恩
발심보피은

難行苦行恩
난행고행은

이국토에 나는이는 덕을 잘답아

구족하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삼매를 얻어서

모든부처님을 항상보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법문을 듣고자하면

저절로 법문이 들어지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보리에서

물너감이 없기가 원이오

이국토에 나는이는 법인을 얻어

퇴전함이 없기가 원이라

(모든 불보살의 열가지 큰 은혜)

발심하여 넓히 입혀지는 은혜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는 은혜

일향위타은 一向爲他恩

수형육도은 垂形六途恩

수축중생은 隨逐衆生恩

대비심중은 大悲深重恩

은승창열은 隱勝彰劣恩

위실시권은 爲實示權恩

시멸생선은 示滅生善恩

비염무진은 悲念無盡恩

언제든지 남을 위하는 은혜

몸이 육도를

따르는 은혜

중생을 따라다니며

가르쳐 주는 은혜

자비를 베풀어 줌이

깊고 무거운 은혜

잘난 보신을 숨기고

열한화신 나타내시는 은혜

실상을 위하여

권교를 시현하는 은혜

열반하심을

시현하여 내게하는 은혜

선심을

내게하는 은혜

자비심이 다함없이 없는 은혜

普賢菩薩十種大願
보현보살십종대원

(보현보살의 열가지 큰원력)

禮敬諸佛願
예경제불원

모든부처님께
예경하는 원이오

稱讚如來願
칭찬여래원

여래를 칭찬하는 원이오

廣修供養願
광수공양원

넓고 크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원이오

懺除業障願
참제업장원

업장을 참회하여
제해버리는 원이오

隨喜功德願
수희공덕원

다른이가 공덕짓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는 원이오

請轉法輪願
청전법륜원

부처님에게 법문설하기를
청하는 원이오

請佛住世願
청불주세원

부처님이 열반에 드지마시고
항상 계시기를 청하는 원이오

常隨佛學願
상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불도를 배우기가 원이오

恒順衆生願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의 뜻을

순종하기가 원이오

普皆迴向願
보개회향원

넓이 일체중생으로

불도에 회향케하는 원이라

釋迦如來八相成道
석가여래팔상성도

兜率來儀相

도솔천으로부터 흰코끼리를

도솔내의상

타고 오시었다

毘藍降生相

늪비니원에서 四월八일에

四門遊觀相

탄생하시었다
동·서·남·북 사대문을 구경하시다가

사문유관상

무상을 깨달으시었다

踰城出家相
유성출가상

二월八일밤중에 궁궐을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시었다

설산수도상 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 樹下降魔相

녹원전법상 鹿苑轉法相

쌍림열반상 雙林涅槃相

다생부모십종대은 多生父母十種大恩

회탐수호은 懷耽守護恩

임산수고은 臨產受苦恩

생자망우은 生子忘憂恩

설산에 들어가서

도을 닦으시었다

보제수 아래서 도를 깨치시고

八만四千마군이를 항복받었다

녹야원에서 다섯비구를 위하여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었다

二月十五일에 사라쌍수간에서

열반에 드시었다

(여러생으로 부모님에게 의탁해서

나온 열가지 큰 은혜)

뱃속에 있을적에

잘보호한 은혜

해산할때에

괴로움을 받던 은혜

아들을 낳아서

근심을 이저버리는 은혜

咽苦吐甘恩
연고토감은

週乾就濕恩
회간취습은

乳哺養育恩
유포양육은

洗濯不淨恩
세탁부정은

遠行憶念恩
원행억념은

爲造惡業恩
위조악업은

究竟憐愍恩
구경연민은

五種大恩銘心不忘

오종대은명심불망

쓴것은 삼키고

단것은 토해서 먹인 은혜

마른자리는 아이를 눕게 하고

젖은 자리로 나아간 은혜

젖을 먹이여

양육한 은혜

부정한것을 세탁하여

길려준 은혜

멀리 길을 떠나면

잘갔다 잘오는가 생각하는 은혜

아들을 위하여 가즌

악한 죄를 짓는 은혜

끝끝내 불상히

생각하는 은혜

(다섯가지 큰 은혜)

마음에 새기어 잊어버리지 말것)

各安其所國王之恩

流通正法師長之恩

유통정법사장지은

生養劬勞父母之恩

생양구로부모지은

琢磨相成朋友之恩

탁마상성붕우지은

四事供養檀越之恩

사사공양단월지은

當可爲報有此念佛

당가위보유차염불

高聲念佛十種功德

一者功德能排睡眠

각각 처소를 정하고 잘살아가니

국왕의 은혜

정법을 유통시키니

스승의 은혜

낳아서 길으기 애를 썼스니

부모의 은혜

서로 탁마하여 공부를 잘하니

붕우의 은혜

의복 음식 와구 탕약으로 공양하니

단월의 은혜

맛당히 이은혜를 갚기위해서

이다섯가지 염불이 있나니라

(높은 소리로 염불하면

열가지 공덕이 있나니라)

첫째는 조름이 오지 아니하고

二者功德天魔驚怖

三者功德聲遍十方

四者功德三途息苦

五者功德外聲不入

六者功德念心不散

七者功德勇猛精進

八者功德諸佛歡喜

九者功德三昧現前

둘째는 마구니가 놀래고

셋째는 소리가 시방에 두루하고

넷째는 지옥 아귀 축생이

고생됨을 쉬고

다섯째는 바깥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여섯째는 염불하는 마음이

홀어지지 아니하고

일곱째는 응맹있게

정진하고

여덟째는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아홉째는 삼매가

앞에 나타나고

십자공덕왕생정토

十者功德往生淨土

열째는 극락세계에
가서 나나니라

계송

(네귀절이 계송하낫식이다)

천상천하무여불

天上天下無如佛

하늘위나 하늘아래나

부처님 같으신이가없고

시방세계역무비

十方世界亦無比

시방세계 가운데도

또한 견줄이가 없나니

세간소유아진견

世間所有我盡見

세간에 있는바를

내가 모두보아도

일체무유여불자

一切無有如佛者

부처님과 같은이가

결정코 없도다

영축염화시상기

靈鷲拈華示上機

영추산에서 꽃한가지를 잡고

억만대중에 보이니

공동부목접맹취

肯同浮木接盲龜

어찌 눈먼 거북이가 한조각

뜬나무를 잡는것이겠는가

음광불시미미소
飲光不是微微笑

무한청풍부여수
無限清風付與誰

찰진심념가수지
刹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
大海衆水可飲盡

허공가량풍가계
虛空可量風可繫

무릉진설불공덕
無能盡說佛功德

삼계유여급정륜
三界猶如汲井輪

백천만겁역미진
百千萬劫歷微塵

가섭존자가

웃지 아니했으면

한이 없는 탐은 바람을

누구에게 붙여 주었으리오

수많은 세계안에 마음을

가히 세여서 알며

큰바다 많은 물을

모다 마시어 다하며

허공을 헤아리며

바람을 붙잡아매는 재조가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능히

다 말로 하지 못하니라

중생이 삼계안에 돌아다니는것이

마치 우물에 두레박줄과 같아서

백겁 천겁 만겁이나 두고두고

한량없는 티끌수 세계를 지나왔으니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更待何生度此身』

假使頂戴經塵劫

身為床座徧三千

若不傳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
『畢竟無能報恩者』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心若滅時罪亦亡』

이 몸을 이번 에

제도 하지 아니 하면

또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 하리오

부처님을 머리 에 이고

수 많은 겁을 지내며

몸이 평상이 되고 자리가 되어서

삼천대천세계에 팍 차더라도

만일 설법을 해서

중생을 제도치 못하면

필경 능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나니라

죄가 자성이 없어서

마음으로 부터 이어나는지라

마음이 멸할 때에

죄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罪亡心滅兩俱空
죄망심멸양구공

是即名為真懺悔

『시즉명위진참회』

報化非真了妄緣

보화비진요망연

法身清淨廣無邊

법신청정광무변

千江有水千江月

천강유수천강월

萬里無雲萬里天

만리무운만리천

『千尺絲綸直下垂』

천척사륜직하수

一波機動萬波隨

일파자동만파수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멸하여

죄와 마음이 두가지가 다 공하면

이것이 곧 참으로

참회가 되나니라

보신 화신이 참이 아니라

망녕된 인연임을 오달하겠고

법신은 맑고 맑아서

넓고 갯이 없나니

일천강에 물이 있으니

일천강 달이오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 하늘이로다

일천자의 낚시줄을

내려드리우고 있으니

한물결이 움직일때에

일만물결이 따라움직인다

야정수한이불식
夜靜水寒魚不食

만선공재월명귀
滿船空載月朗歸

산당정야좌무언
山堂靜夜坐無言

적적요요본자연
寂寂寥寥本自然

하사서풍동임야
何事西風動林野

일성한안여장천
一聲寒鴈唳長天

청산첩첩미라굴
靑山疊疊彌陀窟

황해망망적멸궁
蒼海茫茫寂滅宮

밤은고요하고 물은차서

고기가 낚시발을 먹지아니하니

빈배에 밝은 달만 가득히

씻고 도라 오는도다

산짐 고요한 밤에

아무말 없이 앉았으니

적적하고 또고요하여

본래대로 자연스럽도다

어찌해 서풍이 불어서

수풀과 들을 시끄럽게하여

한소리치는 찬기러기가

허공중천에 날게하는가

푸른산이 첩첩이 쌓였으니

아미타불의 법보굴이오

넓은 바다가 망망이 차있으니

부처님의 적멸궁이라

물物 拈來 無星 碍

기간송정학두홍
巖看松頂鶴頭紅

극락당전만월용
極樂堂前滿月容

옥호금색조리공
玉臺金色照虛空

약인일엄칭명호
若人一念稱名號

경각원성무량공
頃刻圓成無量功

아미타불재하방
阿彌陀佛在何方

착득심두절막망
着得心頭切莫忘

물건마다 잡아오매

걸림이 없으니

학의 머리가 붉은것을

몇번이나 보았는고

극락전에 계시는 부처님얼굴

달과 같이 둥구시어

양미간에 옥호의 금빛이

허공에 가득차나니

누구든지 일엄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잠간 동안에 두렷이

한량없는 공을 이루도다

아미타불이

어느편에 계신고

마음머리에 꼭 부치어서

간절이 잊어버리지말라

念念到念窮無念處
염도염궁무염처

六門常放紫金光
육문상방자금광

願共法界諸衆生
원공법계제중생

同入彌陀大願海
동입미타대원해

盡未來際度衆生
진미래제도중생

自他一時成佛道
자타일시성불도

南無西方淨土
나무서방정토

九千五百
구천오백

極樂世界
극락세계

三十六萬億
삼십육만억

一十一萬
일십일만

同名同號
동명동호

大慈大悲
대자대비

阿彌陀佛
아미타불

그생각이 생각할수
없는곳에 이르면

눈귀코혀몸뜻여섯가지
문에서 항상 자금광을
놓나니라

법계안에 있는
모든 중생과 함께

아미타불이 건설한
극락세계에 가서
나가가 원이오며

미래의 세계가 다
하도록 중생을 제도해서

나와 남이 한꺼번에
불도를 이루워지이다

(아미타불이 이와같이 많이 있다는 뜻)

나 무 서 방 정 토 南無西方淨土 극 락 세 계 極樂世界 불 신 장 광 佛身長廣 상 호 무 변 相好無邊

금 색 광 명 金色光明 변 조 법 계 遍照法界 사 십 팔 원 四十八願 도 탈 중 생 度脫衆生 불 가 不可

설 說 불 가 설 不可說 불 가 설 전 不可說轉 불 가 설 不可說 항 하 사 恒河沙 불 찰 미 佛刹微

진 수 塵數 도 마 죽 위 稻麻竹葦 무 한 극 수 無限極數 삼 백 육 십 만 억 三百六十萬億 일 십 一十

일 만 一萬 구 천 오 백 九千五百 동 명 동 호 同名同號 대 자 대 비 大慈大悲 아 등 도 사 我等導師

금 색 여 래 金色如來 아 미 타 불 阿彌陀佛 (아미타불이 이와같이 많이 있다는 뜻)

나 무 무 견 정 상 상 아 미 타 불 南無無見頂上相阿彌陀佛 정 수 리 가 淨수리가 뵈 이 지 뵈이지 아 니 하 는 아니하는
아 미 타 불 계 아미타불계 귀 의 함 니 다 귀의함니다

南無頂上肉髻相阿彌陀佛

정수리위에 육계가 있으니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髮紺琉璃相阿彌陀佛

머리털이 검붉어 유리와같은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眉間白毫相阿彌陀佛

양미간에 백호를 가지신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眉細垂楊相阿彌陀佛

눈섭이 가늘어서 수양과같은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眼目清淨相阿彌陀佛

눈이 청정하신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耳聞諸聲相阿彌陀佛

귀로는 모든 소리를 잘듣는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鼻高圓直相阿彌陀佛

코가 높고 둥그신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舌大法螺相阿彌陀佛

혀가 커서 큰소리와 같은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齒大法螺相阿彌陀佛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身色眞金相阿彌陀佛

몸빛이 진금과 같으신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南無文殊菩薩

南無普賢菩薩

南無觀世音菩薩

無大勢至菩薩

南無金剛藏菩薩

南無除障碍菩薩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南無一切清淨大海衆善薩摩訶薩

願共法界諸衆生

법계안에 있는
모든중생과 함께

同入彌陀大願海

아미타불이 건설한 극락세계에
가서나기가 원입니다

十方三世佛

시방세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부처님 가운데

阿彌陀第一

아미타부처님이
제일이시라

九品度衆生

구품연화대를 벌려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威德無窮極

위엄과 덕이
한량없으신지라

我今大歸依

내가 이제 크게
귀의 하며 발원하여

懺悔三業罪

신 구의 삼업의 죄를
참회하옵고

凡有諸福善

모든 복과
선근은

至心用回向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오며

원동염불인 願同念佛人

진생극락국 盡生極樂國

견불요생사 見佛了生死

여불도일체 如佛度一切

원아임욕명종시 願我臨欲命終時

진제일체제장애 盡除一切諸障礙

면견피불아미타 面見彼佛阿彌陀

즉득왕생안락찰 卽得往生安樂刹

염불하는 사람과

한가지로

다 | 극락국토에

가서 나서

아미타불을 뵈옵고

살고 죽는것을 요달한후

아미타불과 같이

일체중생을 제도하리이다

원컨대 이목숨이

마칠 때에

일체 모든 장애될것이

다 | 제해져서

곧 아미타불을

뵈옵고

극락정토에

가서 나겠나이다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願往生願往生

願生極樂見彌陀

아미타불을

불은 이공덕으로

넓히 일체중생에게

미치어서

나와 모든 중생과

한가지 더부러

당연히 극락국에

가서 나서

똑같이 아미타불님을

뵈옵고

다 한가지 불도 이루기가

원입니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서

아미타불을 뵈옵고

獲蒙摩頂授記別

願往生願往生

원왕생원왕생

願在彌陀會中座

원재미라회중좌

手執香華常供養

수집향화상공양

願往生願往生

원왕생원왕생

願生華藏蓮華界

원생화장연화계

自他一時成佛道

자타일시성불도

無量壽佛說往生淨土呪

무량수불설왕생정토주

정수리 만저춤을 입고

수기를 말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아미타불이 계신

회중에 있어서

손에 향과 꽃을 잡고

항상공양을 올리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극락정토에 나기가 원이오

화장세계중 연화세계에

나서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기가 원입니다

나 무 아 미 다 바 야 다 라 아 다 야 다 지 야 라 아 미
 리 도 바 비 아 미 리 다 싯 담 바 비 아 미 리 다 비
 가 란 데 아 미 리 다 비 가 란 다 아 미 니 가 가 나
 깃 다 가 레 사 바 하

결정왕생정토진언 決定往生淨土眞言

나 무 삼 만 다 못 다 남 음 아 마 리 다 바 베 사 바
 하

상품상생진언 上品上生眞言

음 마 리 다 라 흙 흙 바 탁 사 바 하

아 미 타 불 본 심 미 묘 진 언 阿彌陀佛本心微妙眞言

다냐라 음 아리다라 사바하

阿彌陀佛心中心呪
아미라 불심중심주

음 노계 새바라 라아하릭

無量壽如來心呪
무량수여래심주

음 아마리다 데체 아라훤

無量壽如來根本陀羅尼
무량수여래근본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아리야 아미다

바야 다리아다야 알하데 삼막삼못다야 다냐

타 음 아마리제 아마리도 나바베 아마리다

삼바베 아마리다 알베 아마리다 싯제 아마

리다 미가란제 아마리다 미가란다 아미니

아마리다 아아야 나비가래 아마리다 낭노비

사바래 살발라 사다니 살바갈마 가로삭사

염가래 사바하

解怨結真言

해원결진언

음 삼다라 가닥 사바하

發菩提心真言

발보리심진언

음 모지짓다 모다 바나야 믹

觀世音菩薩滅業障真言

관세음보살멸업장진언

음 아로능계 사바하

地藏菩薩滅定業真言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하

普供養真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普迴向真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후

願成就真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후

補闕真言

보결진언

음 호로호로 사야복계 사바하

稽首西方安樂刹 극락세계에 계시옵서

계수서방안락찰 중생을 이끄러주시는

接引衆生大導師 대도사 아미타부처님에게

접인중생대도사 귀의하옵고

我今發願願往生 그세계에 가서 나기를

아금발원원왕생 발원하옵나니

惟願慈悲哀攝受 자비하신 원력으로

유원자비애섭수 굽어 살피 주시옵소서

後願 終 후송 끝

사대주

四大呪

나무대불정

南無大佛頂 如來密因

여래밀인

修證了義

수증요의

諸菩薩

제보살

萬行

만행

首楞嚴神呪
수능엄신주

다냐라 음아나레 비사제 비라 바아라 다리

반다반다니 바아라 바니반 호흞 다로용박

사바하

正本 觀自在菩薩 如意輪呪
정본 관자재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사라야 모지사다야 마하사

다야 사가라 마하 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

다라 다냐라 가가나 바라지진다 마니 마하

무다레 루로루로 지따 하리다예 비사예 음

부다나 부다니 야 등

佛頂心 觀世音菩薩 娑陀羅尼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아리야 바로기

제 사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

하가로니가야 다냐라 아바다아바다 바리바제

인혜혜 다냐라 살바다라니만다라야 인혜혜

바라마수사 못다야 음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살바듯

따 오하야미 사바하

佛說消災吉祥陀羅尼
불설 소재길상 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샤 사나

남 다냐타 음 카카 카헤 카헤 흠흠 아바

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디따 디

따 디리 디리 빠다 빠다 선지카 시리에

사바하

般若心經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

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

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

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

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

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

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無老

死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碍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故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

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故說般若波羅蜜多呪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卽說呪曰

아제아제 揭諦揭諦

바라아제 波羅揭諦

바라승아제 波羅僧揭諦

모디 菩提

사바하 娑婆訶

반야심경 般若心經

끝 終

심경해석

큰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가는 마음경이라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가는

행을 행할때에 다섯가지 (빛, 받는것, 생각하는것, 변천

하는것, 아는것) 쌓인것이 다 | 공한출로 보아서

일체 고가되고 액이됨을 제도했나니라 사리

자 (번역하면 신자라 부처님의 십대제자의 한사람으로 지혜가 제일)야
 빛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빛과** 다르
 지 아니하며 빛이 곧 공이오 공이 곧 빛이
 라 받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변천하는 것과 아
 는 것이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야
 이 모든법의 공한상은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때가 끼지도 아니하며
 조출하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며 감
 하지도 아니하니 이러한 연고로 공한가운
 데에는 빛이 없고 받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변천하는 것과 아는 것이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닿치는 것과 법이 없으며 보는
 경계도 없으며 내지 뜻으로 아는 경계까지
 없으며 무명 (무상계, 무리에 보라) 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없어짐도 없으며 내지 늙고 죽는 것
 도 없으며 또한 늙고 죽는 것이 없어짐도
 없으며 고 (세세생생에 생노병사를 받아서 몸이 있으면 고가 되는 것)
 와 집 (생각생각이 번뇌 망상을 이르킨즉 한량없이 엮이쎄여 모뉘진
 것) 과 멸 (때때로 계정혜 삼학을 닦아서 쉰인업을 끊어버리는 것)
 과 도 (계정혜 삼학의행이 차면 도가 극도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는
 것) 가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또한 얻은 것도

없나니 얼은바가 없는연고로 보리살라 (보데살타
 는즉 보살이니 깨달은 증생이라 제와타는버리고 보살두자만 쓰는것)가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가는 연고로 마음이
 걸림이 없고 마음이 걸림이 없는 연고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뀌어지는 꿈생각을 여의
 어서 팔경 열반에 드시며 삼세 모든 부처
 님이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가는 연고로 위
 없는 바르고 옳게 깨달음을 얻으시나니 그
 러므로 알과라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감이
 이 크게 신통한 주문이며 이 크게 밝은 주

문이며 이 위없는 주문이며 이 무엇에 바
길수 없는 주문이라 능히 일체 고액을 제
해버리어서 진실하고 헛되지 아니하니 그
럼으로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가는 주문을 설
하니 그 주문에 가로대
아데아데 바라아데 바라승아데 모디 사바하
심경해석 끝

普濟尊者懶翁大和尚發願文
보제존자나용대화상발원문

願我世世生生處

원아세세생생처

常於般若不退轉

상어반야불퇴전

如彼本師勇猛智

여피본사용맹지

如彼舍那大覺果

여피사나대각과

如彼文殊大智慧

여피문수대지혜

如彼普賢廣大行

여피보현광대행

如彼地藏無邊身

여피지장무변신

내가 대대로

나고 또나는 곳마다

항상 큰 지혜에

물너가지 아니해서

본사 석가모니처럼

용맹 지혜를 얻으며

노사나불처럼

큰 과(果)와 같으며

문수보살 처럼

큰 지혜를 갖으며

보현보살 처럼

광대 행을 갖으며

지장보살 처럼

갖 없는 몸을 갖으며

如彼觀音卅二應

十方世界無不現

시방세계 무불현

普令衆生入無爲

보령중생입무위

聞我名者免三途

문아명자면삼도

見我形者得解脫

견아형자득해탈

如是教化恒沙劫

여시교화항사겁

畢竟無佛及衆生

필경무불급중생

願諸天龍八部衆

원제천룡팔부중

관세음보살 처럼

삼십이응신을 갖어서

시방세계 두루

날아나서

널이 중생들로

무위도에 들게하여

나의 이름 듣는이는

삼도고를 벗어나고

나의 형상 보는이는

해탈을 얻게되여

이와같이

오랜겁을 교화식혀

필경 부처 중생

없는데 까지 이르러지이다

모든 천룡과

팔부중은

爲我擁護不離身

나를 옹호하되

내 몸을 떠나지 말어서

於諸難處無諸難

모든 어려운 곳에

어려움 없음으로

如是大願能成就

이 같은 큰 원 능히

성취토록 하소서

發願文 終

발원문 끝

怡山慧然禪師發願文

十方三世

부처님과

八萬四千

法寶

菩薩聲聞

스님께

至誠歸依

하옵나니

慈悲

願力

급이살되

주시옵소서

저이들이

참된성품

등지옵고

무명_{無明}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물결따라

빛과소리

물이들고

심술궂고

용심_{欲心}내어

온갖번뇌_{煩惱}

쌓았으며

보고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_罪를지어

잘못된길

갈광질광

생사_{生死}고해_{苦海}

헤매면서

나와남을

집착_{執着}하고

그른길만

찾아다녀

여러생에

지은업장_{業障}

크고작은

많은허물

삼_三寶_寶前_前
삼보전에

願_願力_力
원력빌어

一_一心_心懺_懺悔_悔
일심참회

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菩_菩薩_薩
보살님께

살피옵서

苦_苦痛_痛
고통바다

헤어나서

涅_涅槃_槃
열반언덕

가사이다

이세상에

命_命과 福_福은

기리기리

昌_昌盛_盛하고

오는세상_{世上}

佛_佛法_法智_智慧_慧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적마다

종은국_國토_土

밝은스승

만나오며

바른신심_{信心}

근계세고

아희로서

出_出家_家
출가하여

귀와 눈이

聰明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世上 세상일에

물안들고

清淨梵行 청정범행

닭고 닭아

서리같이

嚴戒律 엄한 계율

털끝인들

犯 범하리까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三災八難 삼재팔난

만나 잡고

佛法因緣 불법인연

具足 구족하며

般若智慧 반야지혜

드러나고

菩薩 보살마음

堅固 견고하여

諸佛正法 제불정법

잘배워서

大乘真理 대승진리

깨달은뒤

육波羅蜜
육바라밀

行
행을 닦아

阿僧祇劫
아승지겁

뒤어넘고

곳곳마다

說法
설법으로

千萬
천겁만겁

의심 품고

魔軍衆
마군중을

降服
항복받고

三寶
삼보를

잇사올제

十方諸佛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간인들

쉬오리까

法門
온갖법문

다배워서

모다 통달

하옵거든

福智慧
복과지혜

함께늘어

無量衆生
무량중생

濟度
제도하며

여섯가지

神通
신통얻고

無生法印
무생법인

이룬뒤에

觀音菩薩
관음보살

大慈悲
대자비로

十方法界
시방법계

다니면서

發願文

보현보살 普賢菩薩

행원 行願으로

많은중생 衆生

건지을제 演說

여러갈래

몸을나뉘

미묘법문 微妙法門

연설하고

지옥아귀 地獄餓鬼

나쁜곳엔

광명농고 光明

신통보여 神通

내모양을

보는이나

내이름을

듣는이나

보옛마음

모다내어

윤회고 輪迴苦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鑊湯地獄

끓는물은

감로수로 甘露水

변해지고 變

검수도산 劍樹刀山

날선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化

고통반년 苦痛

저중생들 衆生

극락세계 極樂世界

왕생하며 往生

나는 새와

갓은 고등苦痛

모진질병疾病

흉년드는凶年

여러중생衆生

천겁만겁千劫萬劫

이 세상

업히 었던

기는 짐승

벗어나서

돌적에는

세상에는世上

리의한일利益

내려오던

권속들도眷屬

애정품고愛情

원수 맺고

좋은복락福樂

약풀되어藥

살이되어

한가진들

원수 거나

누구누구

삼계고해三界苦海

빛진이들

누려지다

치료하고治療

구제하되救濟

배오리가

친한이나

할것없이

뛰어나서

十方世界

衆生

모다성불

하사이다

虛空

있아온들

이내소원

다하리까

有情

無情

一切種智

이루어지이다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끝

義湘祖師法性偈
의상조사법성계

法性圓融無二相
법성원융무이상

諸法不動本來寂
제법부동본래적

無名無相絕一切
무명무상절일체

證智所知非餘境
증지소지비여경

眞性甚深極微妙
진성심심극미묘

不守自性隨緣成
불수자성수연성

一中一切多中一
일중일체다중일

법의 성품이 둥글어서

두가지 상이 없으며

모든법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본대부터 고요해서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서

모든것이 끊어졌으니

견성한이의 알바요

다른사람의 경계는 아니니라

참성품이 심히 깊고

극히 미묘하여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나니

하나가운데 모든것이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뿐이오

一即一切多即一
일즉일체다즉일

一微塵中含十方
일미진중함시방

一切塵中亦如是
일체진중역여시

無量遠劫即一念
무량원겁즉일념

一念即是無量劫
일념즉시무량겁

九世十世互相即
구세십세호상즉

仍不雜亂隔別成
잉불잡란격별성

初發心時便正覺
초발심시변정각

하나로부터 많은것이 되고

많은것이 곧하나이니

한개 티끌가운데

시방세계가 싸여있으며

모든티끌 가운데도

또한이와 같으며

한량없는 오랜겁이

곧 한생각이오

한생각이

곧 한량 없는 겁이라

구세와 십세가

서로서로 섞기되

완연히 섞이지 아니하고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나니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문득 바로 깨달음이라

生死涅槃常共和

理事冥然無分別

이사명연무분별

十佛普賢大人境

십불보현대인경

能仁海印三昧中

능인해인삼매중

繁出如意不思議

번출여의부사의

雨寶益生滿虛空

우보익생만허공

衆生隨器得利益

중생수기득리익

是故行者還本際

시고행자환본제

살고 죽는거와 열반의 경계가

항상 한가지 섞여 있으며

이치와 일이 명연하여

분별함이 없나니

열가지 보현심은

대인의 경계요

부처님의 행인

삼매 가운데

여의한 부사의 경계를

뒤치여 내서

보배비가 중생을 리익케하되

허공에 딱 찻으니

중생이 그릇을 따라

리익함을 얻나니라

이러한 전차로 수행하는자가

근본 짚에 돌아 가려면

休息妄想必不得

無緣善巧捉如意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歸家隨分得資糧

以陀羅尼無盡寶

以陀羅尼無盡寶

莊嚴法界實寶殿

莊嚴法界實寶殿

窮坐實際中道床

窮坐實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

舊來不動名爲佛

법성계 끝

망상을 쉬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인연없는 선교로

여의주를 잡아서

집에 돌아갈제 분수를 따라서

양식을 얻나니

한량이 없는 다라니

보배로 찌

법계를 장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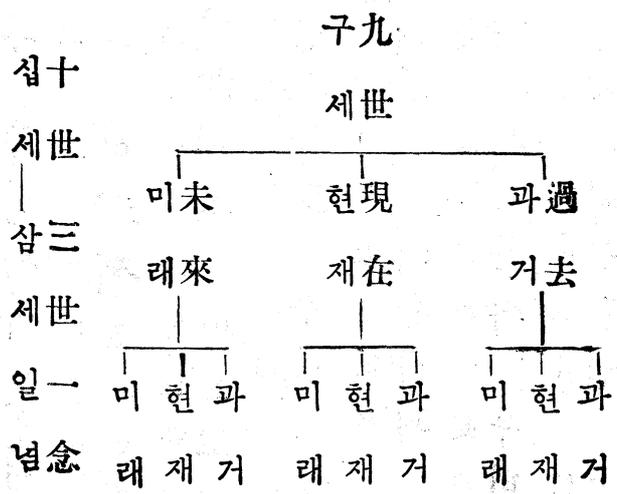
보배궁전에 채우고

실제 중도상에

고요히 앉으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으니

이름이 부처로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각각
 또 삼세가 있으니 모다 합하
 면 구세라 거기에 일념을 합
 하면 십세가 된다

무상계 無常戒

부무상계자 夫無常戒者 入涅槃之要門 越苦海之慈航 是

고일체제불 故一切諸佛 因此戒故 而入涅槃 一切衆生

인차계고 因此戒故 而渡苦海 某靈 汝今日 迴脫根塵

령식독로 靈識獨露 受佛 無上淨戒 何幸如也 某靈 劫

화동연 火洞然 大千俱壞 須彌巨海 磨滅無餘 何況此

신생노병사 身生老病死 憂悲苦惱 能與遠違 某靈 髮毛

조치 爪齒 皮肉筋骨 髓腦垢色 皆歸於地 唾涕膿血

피육근골 수뇌구색 개귀어지 타체농혈

津液涎沫 痰淚精氣 大小便利 皆歸於水 煖氣

歸火 歸轉歸風 四大各離 今日亡身 當在何處

귀화 동전귀풍 사대각이 금일망신 당재하처

某靈 四大虛假 非可愛惜 汝從無始已來 至手

모령 사대허가 비가애석 여종무시이래 지우

今日 無明 緣行 行緣識 識緣名色 名色緣

금일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

六入 六入緣觸 觸緣受 受緣愛 愛緣取 取緣

육입 육입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

有 有緣生 生緣老死憂悲苦惱

유 유연생 생연노사우비고뇌

無明滅則 行滅 行滅則 識滅 識滅則 名色滅

무명멸즉 행멸 행멸즉 식멸 식멸즉 명색멸

名色滅則 六入滅 六入滅則 觸滅 觸滅則 受

명색멸즉 육입멸 육입멸즉 촉멸 촉멸즉 수

滅受滅則愛滅愛滅則取滅取滅則有滅
수멸즉 애멸 애멸즉 취멸 취멸즉 유멸

有滅則生滅生滅則老死憂悲苦惱滅
유멸즉 생멸 생멸즉 노사우비고뇌멸

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佛子行道已來世得作
제법종본래 상자적멸상 불자행도이 래세득작

佛

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爲樂歸依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 귀의

佛陀戒歸依達摩戒歸依僧伽戒
불타계 귀의달마계 귀의승가계

南無過去寶勝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
나무과거보승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某靈
세간해 무상사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모영

脫却五陰 殼漏子 靈識獨露 受佛 無上淨戒 豈

不快哉 豈不快哉 天 佛剎 隨念往生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快活

西來祖意最堂堂 自淨其心性本鄉

妙體湛然無處所 山河大地現真光

무상계해석

대저 무상계는 열반에 드러가는 필요한 문

이오 고해를 건너가는 자비의 큰배라 이러

한 전차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아계를 인하여
 열반에 드시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계를
 인하여 고해를 건너가나니 아무개 영가
 아제 육근 (六根 눈 귀 코 혀 몸 뜻) 과 육진 (六塵
 빛 소리 향기 맛 닿치는것 법) 을 벗어나서 신령스러
 운 식 (識) 아 홀로 드러나서 부처님의 위없
 는 깨끗한 계를 받으니 어찌 다행치아니하
 리오 아무개 영가 겁의불이 크게 타서 대천
 세계가 모다 무너져서 수미산과 큰 바다가
 갈려없어져서 남어지가 없나니 하물며 이몸

이 생(生) 로(老) 병(病) 사(死) 와 근심(憂悲) 고
 뇌(苦惱) 로 된 것이니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가 아무개 영가 머리털과 손톱과 이빨과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와 해골과 때 낀 것은
 모다 땅으로 돌아가고 가래침과 고름과 피
 와 진액과 침과 눈물과 모든 청기와 대변
 소변은 모다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
 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
 아가서 사대(地 땅 水 물 火 불 風 바람)가 각각 서로
 헤어져가니 오늘에 없어진 몸이 어느 곳에 갔

는고 아무개 영가 사대가 헛되고 거짓것이
니 사랑하고 아낄것이 아니니라 영가야 시
작함이 없이 오늘까지 이르도록
무명(無明)이 행을 반연하고

무명은 지나간세상에 비롯함이 없이 번뇌
망상이 한덩어리가 되어 밝고 밝은 자성
이 가리워져서 밝지 못한것
행(行)이 식을 반연하고

행은 과거에 아킨 번뇌 망상으로 이제
선(善)하고 악(惡)한 업(業)을 실행하는것

식(識)이 명색을 반연하고

식은 과거세의 업을 의지해서 이생에 태로
태어나는 한생각인것

명색(名色)이 육입을 반연하고

명색은 태중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점점
발육하는것

육입(六入)이 당임을 반연하고

육입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구족하여 장차 태로 벗고 나오는것

당임(觸)이 받는것을 반연하고

당임은 두살 세살때에 고와 락을 분별치 못
하고 다만 몸에 당이는 것만 아는 것

받(受)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반연하고

받는 것은 육칠세 이후에 점점 사물을 대해

서 고와 락을 분별해서 감동해짐을 받는 것

사랑(愛)하는 것이 취함을 반연하고

사랑하는 것은 열네살 열다섯살 뒤로부터

가져가지 강한 애욕을 내는 것

취(取)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반연하고

취하는 것은 사람이 장성한 이후에 애욕이

더욱 많아져서 모든경계에 조차가며 모든
욕심 나는바를 취하는것

있(有)는것이 생을 반연하고

있는것은 모든일을 사랑하고 취하는 번뇌
를 의지해서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장래
에 어찌될것을 결정하는것

생(生)이 노와 사와 우비와 고뇌를 반연하
나니라

생은 현재의 업을 의지하여 미래의 날것
을 생각하는것

노(老)는 늙어지는것

사(死)는 죽는것

우비(憂悲)는 근심하고 슬피하는것

고뇌(苦惱)는 고생되고 시끄러운것

무명이 멸한즉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한즉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한즉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한즉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한

즉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한즉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한즉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한즉 취

가 멸하고 취가 멸한즉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한즉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한즉 노와 사와
 우비와 고뇌가 멸하나니라
 모든법이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또 고요한 상이라 불자가 이도리를 실행하
 면 오는 세상에 꼭 부처가 되나니라
 모든행이 항상됨이 없어서 생하고 멸하는
 법이라 생하고 멸함이 또 없어지면 고요하
 고 고요해서 즐거움이 되나니라
 부처님께 (戒) 를 의지하며 법계 (戒) 를 의지하
 며 스님께 계 (戒) 를 의지하며

과거에 보승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님
에게

一、여래(如來) 삼세 모든 부처님이 다 | 같고
같으며(如) 부처님과 부처님이 모두 여
여한 참된 성품으로 좃아 와(來)서 삼
계를 교화함

二、응공(應供) 모든 악한것을 끊고 인천(人
天)의 공양을 받음
三、정변지(正徧知) 참되게 모든법을 아는것

四、명해족(明行足) 삼명의 행이 구족한것

삼명 (三明)

一、숙명명(宿命明) 나와남을 전생에 모

든 잘살고 못살고 나고 죽는일

을 잘아는것

二、천안명(天眼明) 나고 남을 후세상에

모든 잘살고 못살고 나고 죽는

일을 잘아는것

三、누진명(漏盡明) 금생에 고생됨을 알

아서 모든번뇌를 끊는 지혜

五、선서(善逝) 여실히 저언덕에 가서 다시

살고 죽는데 빠지지 아니하는것

六、세간해(世間解) 이세상에 유행과 무경의

일을 모두 아는것

七、무상사(無上士) 위없는 사부임

조어장부(調御丈夫) 부처님이 능히 모든

제도할 대장부를 거느리는것

八、천인사(天人師) 하늘과 사람의 스승임

九、불(佛) 깨달은남

十、세존(世尊) 부처님은 만덕을 갖추심으로

세상에서 존중이 여김

의지하오니 아무개 영가 다섯가지 가림 (五陰)

심경해석에 다섯가지 쌓인거와 같음 의 껌질을 벗어버

리고 영통스러운 식 (識) 이 홀로 드러나서

부처님의 위없는 깨닫힌 계를 받으니 어찌

상쾌하지 아니하며 어찌 상쾌하지 아니하리

오 천당과 부처님 국토에 마음대로 가셔나

서 쾌활쾌활 하소서

서역으로부터 건너오신 조사의 뜻 당당하여

스스로 그마음을 조출히하니 자성의 본
고향이라 묘한 체가 막아서 있는곳이 없
으니 산과 물과 대지가 참된 빛을 나라
낸다

무상계해석 끝

경허스님 鏡虛禪師

참선곡 參禪曲

홀연히 忽然

생각하니 生覺

도시몽중 都是夢中

이로다

천만고 千萬古

영웅호걸 英雄豪傑

북망산 北邙山

무덤이요

부귀문장 富貴文章

쓸데없다

황천객을 黃泉客

면할소냐 免

오호라 嗚呼

나의몸이

플끝에

이슬이요

바람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三界大師

부처님이

정녕히 叮嚀

생사윤회 生死輪廻

상낙아정 常樂我淨

팔만장교 八萬藏教

다시공부 工夫

답난길을

이르사대

영단하고 永斷

무위도를 無爲道

유전이라 遺傳

어려우니

말하려면

마음깨쳐

불생불멸 不生不滅

사람마다

사람되야

나도어서

허다히 許多

성불하야 成佛

저국토에 國土

다할줄로

못답으면

답어보세

많건마는

대강추려 大綱

착의각반 着衣喫飯

소소영영 昭昭靈靈

몸둥이는

천진면목 天真面目

잠도자고

적어보세

대인접화 對人接話

지각하는 知覺

송장이요

나의부처

일도하고

앉고서고

일체처 一切處

이것이

망상번뇌 妄想煩惱

보고듣고

눈한번

보고듣고

일체시에 一切時

무엇인고

본공하고 本空

앉고눕고

깜짝할제

천리만리 千里萬里

분명한 分明

의심하고 疑心

주린사람

육칠십 六七十

자식생각 子息生覺

다녀오고

나의마음

의심하되 疑心

밥찾듯이

늪은과부 寡婦

간절하듯 懇切

허다한 許多

어떻게

고양이가

목마른데

외자식을 子息

생각생각 生覺生覺

신통묘용 神通妙用

생겼난고

쥐잡듯이

물찾듯이

잃은후에

잊지말고

김표이궁구 窮究

폐침망찬 廢寢忘饑

홀연히 忽然

천진면목 天真面目

석가여래 釋迦如來

크도않고

하여가되

할지경에

깨다르면

절묘하다 絕妙

이아닌가

적도않고

일념만년 一念萬年

대오하기 大悟

본래생긴 本來

아미라불 阿彌陀佛

젊도않고

본래생긴 本來

되게하야

가깝도다

나의부처

이아니며

늙도않고

자기영광 自己靈光

개천개지 蓋天蓋地

지옥천당 地獄天堂

선지식을 善知識

다시의심 疑心

수연방광 隨緣放曠

유연중생 有緣衆生

이러하고

본공하고 本空

찾어가서

없엔후에

지내간되

제도하면 濟度

열반진락 涅槃眞樂

생사윤회 生死輪廻

요연히 了然

세상만사 世上萬事

빈배같이

보불은덕 報佛恩德

가없다

본래없다 本來

인가마저 印可

망각하고 忘却

떠놀면서

이아닌가

일체계행 一切戒行

대원력을 大願力

동체대비 同體大悲

오온색신 五蘊色身

바깥으로

해태심을 懈怠心

지켜가면

발하여서 發

마음먹어

생각하되

역순경계 逆順境界

내지말고

천상인간 天上人間

항수불학 恒隨佛學

빈병걸인 貧病乞人

거품같이

몽중으로 夢中

허령한 虛靈

복수하고 福壽

생각하고 生覺

괄시말고 愒視

관을하고 觀

관찰하여 觀察

나의마음

허공과 虛空

팔풍오욕 八風五欲

태산같이 泰山

이날저날

무삼공부 工夫

후회한들 後悔

같은줄로

일체경계 一切境界

써나가세

헛보내고

하여볼까

무엇하리

진실히 眞實

부동한 不動

헛튼소리

늪는줄을

죽을제

사지백절 四肢百節

생각하여 生覺

이마음을

우시개로

망각하니 忘却

고통중에 苦痛中

오려내고

머릿골을

조개난듯

오장육부五臟六腑

타는중에中

앞길이

깜깜하니

한심참혹寒心慘酷

내노릇이

이럴줄을

늪가알꼬

저지옥과地獄

저축생의畜生

나의신세身勢

참혹하다慘酷

백천만겁百千萬劫

차타하여蹉蛇

다시인신人身

망연하다茫然

참선잘한參禪

저도인은道人

서서죽고

앉어죽고

앉도않고

선세하며蟬蛻

오래 살고

항하사수 恒河沙數

아무쪼록

부지런히

죽을날에

자옥자옥

곧죽기를

신통묘용 神通妙用

이세상에 世上

하여보세

당도하니 當到

사지로세 死地

마음대로

임의쾌락 任意快樂

눈코를

오늘내일

포주간에 庖厨

예전사람

자재하며 自在

소요하니 逍遙

쥐어뜯고

가는것이

가는소가

참선할제 參禪

마디그늘

아꼈거늘

나는어이

방_放일_逸하며

예전사람

참_參선_禪할제

잠오는것

성_放화_逸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어이

방_放일_逸하며

예전사람

참_參선_禪할제

하루해가

가_放게_逸되면

다리뻐고

을_毒었거늘

나는어이

방_放일_逸한고

무_無명_明업_業식_識

독_毒한술에

혼_昏혼_昏불_不각_覺

지_放내_逸가니

오호라 嗚呼

꾸지저도

혼미한 昏迷

쓸데없는

쓸데없는

우습도다

슬프도다

조심않고 操心

이마음을

탐심진심 貪心 瞋心

허다분별 許多分別

나의지혜 智慧

라일러도

심상히 尋常

어이하야

공연히 空然

날마다

누구를

아니듣고

지내가니

인도할꼬 引導

이르키고

분요하니 紛擾

한탄할꼬 恨歎

지각^{知覺}없는

저나비가

불빛을

탐^貪하여서

제죽을줄

모르도다

내마음을

못다으면

여간^{如干戒行}계행

소분^{少分}복덕^{福德}

도무지

허사^{虛事}로세

오호^{嗚呼}라

한^寒심^心하다

이글을

자세^{仔細}보아

하루도

열두^{工夫}때며

밤으로도

조금자고

부지런히

공부^{工夫}하소

이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위에 冊床

왜여놓고

시시대때 時時

경책하소 警策

할말을

다하려면

해묵서이 海墨書而

부진이라 不盡

이만적고

그치오니

부디부디

깊이아소

다시한말

있아오니

돌장승이

아희나면

그때에

말할테요

西紀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日印刷
西紀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五日發行

수행요집 定價() 원

金海郡鳴旨面真木里(清涼寺)

編輯人 金 弘 經

釜山市中區瀛州洞一街四二番地

發行人 李 善 覺

發行處 국제신문출판사

登錄 (다) 第一號

印刷處 國際印刷株式會社

電話 ②〇五九二